

지역 소식통

김제지평선축제 짚신신고

황금쌀 발자' 이벤트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짚신을 신고 벽골제 제방을 걷는 기존의 전통 행사 프로그램에 추첨을 통해 쌀을 증정하는 새로운 이벤트를 덧붙여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벽골제를 보수하는 인부들이 헤어진 짚신을 버리던 것에서 기원했으며 짚신을 신고 풀뭉치를 삼두로 벽골제 제방을 걷고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 기간인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매일 15시에 진행되고 만 10세 이상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일부터 사전접수를 통해 1일당 1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2,000원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4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김제시는 관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숙박업 21개소, 세탁업 4개소가 녹색등급(최우수) 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 총 117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업소를 방문해 일반환경, 준수사항, 권장사항, 위생상태 등 26개에 달하는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항목의 득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90점 이상은 녹색등급(최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황색등급(우수), 80점 미만은 백색등급(일반)을 부여하고, 최근 2년 기간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평가항목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평가결과 숙박업 21개소, 세탁업 4개소가 녹색등급(최우수) 업소로 선정됐다.

추후 업종별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 중 10% 범위 내에서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초읽기

내달 4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개최, 각종 체험 프로그램·먹거리 등 준비 바차

10월 4일, 완주에 가면 더욱 와일드한 체험과 더욱 맛있는 로컬푸드로 가득 찬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되는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완주군은 '아파! 재밌는거! 위매! 맛있는거!'를 주제로 오직 완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먹거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생에서 펼쳐지는 액티브한 매꾸기 잡기 체험, 트라이스트림, 와일드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민호, 박명수, 체리필터의 화려한 공연들도 준비됐다.

이외에도 어린이 네이처 드로잉 대

회, 신바람 체조대회와 같은 연계행사와 외무 보물찾기, 이창호 9단과 함께하는 1:8 지도 대면기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이다.

또한, 완주 13개 읍면 마을 셰프들이 준비한 다양한 메뉴의 로컬밥상과 건강하고 신선한 완주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장터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완주 사람들의 손맛이 어우러진 축제를 만들겠다"며 "축제장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축제정보는 축제 홈페이지(www.wanjufestival.kr) 또는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추진위원회(063-290-3976~8)로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개최된다.



지난 13일 열린 완주청년 맥주축제 먹거리 부스 참여자 시식위생교육.

완주청년 맥주축제 '일맥상통' 27일 개최

먹거리 부스 운영자 20명 대상 교육 등... 성공적 개최 본격 준비

완주군이 지난 13일 '2024 완주청년 맥주축제' 먹거리 부스에 참여 신청한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식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일맥상통' 완주청년맥주축제는 오는 27일 완주군청 테니스장 옆 주차장과 어울림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완주청년정책이장단이 주체가 되어 공연과 체험, 먹거리부스 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22개 부스에서 40여 종류 이상의 다양한 안주거리가 판매되고, 판매 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만원 이하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완주군 가족센터 교육장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음식

판매부스의 식중독 예방 등 위생 안전 지도 뿐만 아니라 축제 참여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제공 및 고객 응대 요령도 교육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년맥주축제는 청년정책이장단 등 지역 청년들과 지역기업이 협업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올해도 신선하고 활기찬 축제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하고 재밌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청년맥주축제는 2022년 완주 가을빛 맥주축제로 처음 개최됐으며 꾸준한 인기로 완주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순항 중'

외국인 근로자 313명 대상 영농 현장 점검... 무단 이탈률 0% 기록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단 이탈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결혼 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60명과 36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근로 실태 및 영농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각 나라별 언어로 명시된 인신매매 피해 식별 지표를 근로자들에게 배부하고, 근로 조건 준수, 인권 침해, 임금 지급 여부 등을 문답 형식으로 확인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통역사와 함께 면담을 진행해 농기주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와 자가 진단 키트 배부를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했으며, 온열 예방 물품도 배부해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장 점검 시 제기된 근로자 입국

시기 및 허용 인원 조정에 대한 의견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지난해부터 현재(8월 31일 기준)까지 입국한 계절근로자 313명 중 무단 이탈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수요 조사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영농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전년 대비 올해 시세 징수율 0.9% 증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총력 반영 결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8월말 기준 현년도 시세 부과액 305억3,200만원 중 292억6000만원을 징수, 징수율 95.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일기간 시세 징수율인 94.8%에 비해 0.9% 증가한 수치다. 시는 정기간 지방세 부과 후 시 공식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계시대 등을 활용해 다양한 납부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기간 납기 5일 전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세정과 직원들이 직접 나서 거리 홍보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로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심고 지방세 전산상 등재된 연락처가 없어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통신사를 통해 납세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봉동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건의문 전달

완주군 - 익산시, 전북지방환경청 방문·설치 반대 입장 표명

완주군이 익산시와 함께 지난 13일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완주·익산 상생협력사업 협약에 따른 봉동을 구암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완주군과 익산시는 전북지방환경청장 및 환경관리과장과의 면담도 진행해 주민의 건강보장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완주군은 사업 예정지 인근인 둔산리와 삼봉2지구 1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삼봉2지구 조성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리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군 개발 계획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익산시 역시 사업 예정지 인근에 대규모 자연환경복원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소각시설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주군이 익산시와 함께 지난 13일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완주·익산 상생협력사업 협약에 따른 봉동을 구암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허가 결정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지자체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완주군과 익산시는 지난 9월 6일 익산시청에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봉동 구암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공동건 의문'을 작성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